

2016. 7. 1.(금)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인방송 TVFM

2016년 06월 30일 (목)
종합

경기도, DMZ 청소년 탐험대 참가자 모집



=연합뉴스 [경인방송=한준석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2016 DMZ 청소년 탐험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젊음, 평화와 통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중·고등학생은 대원으로, 대학생은 지도자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걷기, 캠프 그리브스 체험, 파주 평화누리길 트레킹 등 1박 2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23~24일, 8월 11~12일 두 차례 진행되며 200명씩 총 400명을 선발합니다.

참가비는 중·고등학생은 4만원, 지도자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1차 행사는 다음 달 6일까지, 2차는 다음 달 27일까지 경기도 DMZ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14.4 X 17.1 cm

한류 품은 DMZ...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만든다

경기북부 **학** 바뀐다

▶한류 문화·관광 정책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남북을 가로막은 비무장 지대 철책선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지뢰' 등 보기만 해도 살벌한 껍질이 세워져 있어 긴장감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분단과 갈등의 공간인 이곳이 한류와 문화·관광을 통해 평화와 치유, 화합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경기도가 한류 열풍을 이어갈 글로벌 랜드마크인 K-컬처밸리 기공식을 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청정지역을 활용한 사람이 찾아오는 한류 문화·관광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중 캠프 그리브스가 가장 핫하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알려져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한류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DMZ 남한계산에 불과 2㎞ 떨어져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 한국전쟁 징전현장 후 50여년간 미2사단 506 보병부대가 주둔해 오다 지난 1997년 미군 철수로 한국정부(2007년 8월)에 반환됐다. 장교 숙소, 생활관과 체육관 등 다양한 군 시설이 그대로 보존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함께 재3방굴, 도리전망대, 통일촌 등 인보 관광지도 인근에 자리한다. 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평화인보체험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인보체험시설, 생태문화예술지구, 창작예술촌, 전망시설 등을 조성,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9만5천410㎡→47만7천894㎡)에 따라 파주시 문신읍 사육리, 마장리 일대의 임진각-평화누리 통합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비 182억 원(국비 84억 원, 도비 98억 원)을 들여 평화누리 전입도로 개설, 경관녹지 등 기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도 총력을 쓴다. 6.25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통제로 생태자원과 경관이 잘 보존된 DMZ 관광자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하는 이 사업에 예산 1천15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파주세수리에코타운-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도리산 한민족 소통전시관, 김포시세계기행 평화생태공원-조강물길 이야기 공원 조성, 연천군(고량포구 고호물길 풍류촌-온대리 물거머서식지 생태보호센터, 임진강평화공원) 등 3개

'태양의 후예' 촬영지 캠프 그리브스 개발
파주·김포·연천 연계 생태평화벨트 조성
DMZ 트레킹 '평화누리길' 인프라 확대

한류 플랫폼 'K-컬처밸리' 2018년 완공
5만6천개 일자리·8조 경제유발 효과 기대

사군에 8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출원·등록한 업무표준 '평화누리길'의 인프라도 대폭 확대된다. DMZ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191㎞의 12개 코스로 구성됐다. 해안철책, 한강하류, 임진강, 역사유적이 산재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도는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설치, 환경개선 등 기반 시설을 보강, 관리 운영한다. 또 김포 대평항과 연천 신탄리역을 연결하는 걸경관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류(韓流)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한류월드와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걸음도 분주하다. 한류월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99만4천756㎡(30만평)의 규모에 민간 사업비 4조8천900억 원, 공공예산 7천3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테마파크, 숙박시설, 복합·상업시설, 방송미디어시설, 업무시설, 수변공원 등이 조성된다.

특히 도는 한류 소비 플랫폼을 통한 문화산업 생태계 랜드마크인 'K-컬처밸리(K-Culture Valley)'를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K-컬처 밸리'는 32만㎡(9만2천평)의 규모로 한류의 과거-현재-미래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융복합공연장과 상업(쇼핑), 숙박(호텔) 시설 등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CJ를 비롯한 대기업이 인프라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이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협업 구조이다. 특히 테마파크는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한류문화복합단지로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6개 존과 관리운영으로 구성된다.

'K-컬처 밸리'가 조성되면 중국 등 대규모 한류 관광객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성장해 5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8조 7천42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희(기

두 다리로 평화·생명의 땅 '뚜벅뚜벅'

도 'DMZ 청소년 탐험대' 운영

경기도는 7~8월 분단과 평화, 화해, 생명의 땅인 DMZ 평화누리길 일원을 걸으며 생태·역사·문화를 직접 보고·듣고·느껴보는 '2016 DMZ 청소년 탐험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주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는 '젊음, 평화와 통(통)하다'를 주제로 7월 23~24일, 8월 11~12일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 참가 청소년들은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용, 평화누리길 트레킹 뿐 아니라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행사 첫날에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자전거투어(군남댐~임진물새롬랜드 11.5km 코스)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트레킹 및 환경정화활동(임진물~어가정삼거리

4.7km 코스) ▲MIRACLE LAND DMZ 다큐멘터리 감상 ▲단결 레크리에이션(퀴즈쇼, 장기자랑)등이 진행된다. 또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시설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튿날에는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트레킹 및 환경정화활동(울곡습지공원~장산전망대헬기장 5km 코스) ▲타임캡슐 작성하기 등을 체험하게 된다.

중·고등학생은 대원으로, 대학생은 지도자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DMZ 공식 홈페이지(<http://dmz.gg.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walkyourdmz@g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1회차 프로그램은 7월 6일까지, 2회차 프로그램은 7월 27일까지다.

/안경환기자 jing@
11.3 X 11.1 cm

중부일보

DMZ 청소년 탐험대 참여하세요

총 2회 진행... 400여명 모집

경기도가 경기북부 DMZ일원을 직접 걸어보면서 생태·역사·문화를 보고, 듣고, 느껴볼 수 있는 '2016 DMZ 청소년 탐험대'에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젊음, 평화와 통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016 DMZ 청소년 탐험대'를 통해 직접 분단과 평화, 화해와 생명의 땅인 DMZ 평화누리길 일원을 걸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평화누리길 일원서 1회와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회당 200여 명씩 총 4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1회차 프로그램은 오는 23일부터 24

일까지, 2회는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탐험대원들은 1박 2일 동안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평화누리길 트레킹은 물론,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대원으로, 대학생은 지도자로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DMZ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walkyourdmz@g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회차는 오는 6일까지, 2회차는 27일까지다.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이번 탐험대 활동을 통해 DMZ에 얽

힌 역사와 문화, 자연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DMZ에서 친구들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DMZ 공식 홈페이지(dmz.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윤성기자

DMZ 청소년 탐험대 모집

경기도는 7-8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비무장지대(DMZ)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2016 DMZ 청소년 탐험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젊음, 평화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중·고등학생은 대원으로, 대학생은 지도자로 참가할 수 있다.

행사는 다음 달 23~24일과 8월 11~12일 두 차례 진행하며 200명씩 400명이 대상이다.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군남댐~임진물새롬랜드 11.5km) 걷기, DMZ 다큐멘터리감상, 캠프 그리브스 체험, 파주 평화누리길 트레킹(울곡습지공원~장산전망대 헬기장 5.0km) 등 프로그램이 1박 2일간 진행된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
5.6 X 11.4 cm